

한글과 발음교육 : 자모

김 지 형

경희사이버대학교

- 목차 -

- I. 훈민정음 개관
- II.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
- III. 자모교육과 발음교육
- IV. 훈민정음의 우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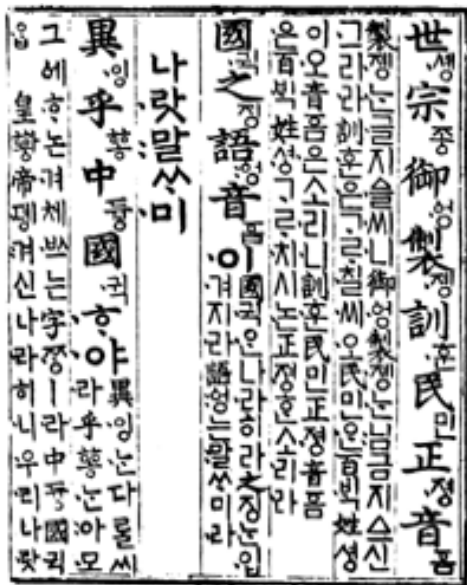
I. 훈민정음(訓民正音) 개관

1. 명칭의 의미 : 백성(民) 가르치는(訓) 바른(正) 소리(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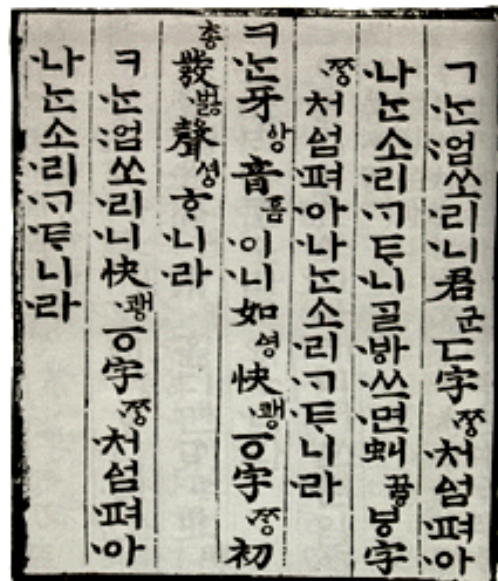
- 글자 이름 : 1443년(세종 25년) 창제.

- 책 이름 : 1446년(세종 28년) 반포.

⇒ 국보 제70호(1962년 12월 20일 지정, 간송미술관 소장)



<그림 1> 훈민정음(언해)



<그림 2> 초성의 음가 설명 부분

2. 『訓民正音』의 체제

- 예의(例義) : 어지(御旨),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을 설명함.

⇒ 훈민정음의 본문에 해당함.

- 해례(解例) : 5해 1례로 구성됨.

· 제자해(制字解) :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, 자음과 모음의 체계, 음상(音相)을 설명함.

· 초성해(初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자음의 발음과 운용 원리 설명.

· 중성해(中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모음의 발음과 운용 원리 설명.

· 종성해(終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받침의 발음과 사성에 대해 설명.

· 합자해(合字解) : 초성, 중성, 종성 합자의 예를 제시, 성조 설명.

· 용자례(用字例) : 한자를 예로 들어 단어의 사용례를 보여 줌.

- 정인지서(鄭麟趾序)

· 훈민정음의 제작 경위 기록(창제자, 책의 편찬자 등).

· 창제 원리와 독창성을 설명.

II.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

1. 훈민정음 창제의 학문적 배경

- 운학(韻學; 聲韻學) : 운서(韻書) 편찬과 관련하여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문.
 - ↳ 중국 왕조 교체기에 표준음을 만들기 위한 운서 편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짐.
- 현대 언어학의 음성학과 음운론 연구에 해당하는 분야.
-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적 배경이 됨.
 - ↳ 『古今韻會舉要(고금운회거요)』, 『洪武正韻(홍무정운)』, 『切韻指掌圖(절운지장도)』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침.
- 성리학(性理學) : 송학(宋學), 즉 중국 송나라 때 고도로 발달했던 유교 철학.
 - 인간의 성음(聲音)을 태극(太極), 음양(陰陽), 오행(五行), 역수(易數) 등으로 설명.
 - 훈민정음 창제의 철학적 배경이 됨.
 - ↳ 『性理大全(성리대전)』의 「太極圖(태극도)」, 「太極圖說(태극도설)」, 「皇極經世書(황극경세서)」, 「易學啓蒙(역학계몽)」, 「律呂新書(율려신서)」 등의 영향을 받음.

2. 훈민정음 제자의 기본 원리

- 음절 구조 : 삼분법을 취함.
 - ↳ 초성(初聲), 중성(中聲), 종성(終聲)으로 구분.
- 중국어의 음절 구조 : IMVE/T

I	M	V	E	T
initial	medial	principal vowel	ending	tone
성모(聲母)	운두(韻頭)	운복(韻腹)	운미(韻尾)	성조(聲調)
성모(聲母)	운모(韻母)			
자음	개음(介音) (음절부음)	모음	음절 말음	

- 훈민정음에서 취한 음절 구조

I	M	V	E	T
initial	medial	principal vowel	ending	tone
성모(聲母)	운두(韻頭)	운복(韻腹)	운미(韻尾)	성조(聲調)
성모(聲母)	운모(韻母)			
초성(初聲)	중성(中聲)	종성(終聲)	사성(四聲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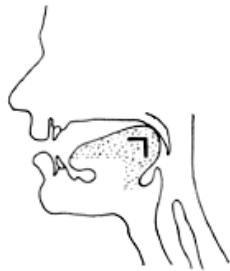
- 초성과 중성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원리로 문자를 만듦.
- 종성은 초성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씀.

3. 초성의 제자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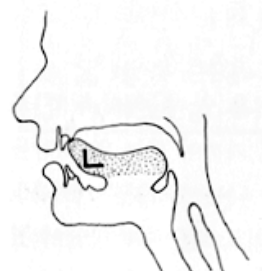
- 원리 : 발음 기관의 상형과 가획(加劃), 이체(異體).
- 방법 :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다른 글자 제작.
 -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듦.
 -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듦.
 - 기본자와 모양을 달리하여 이체자를 만듦.
- 초성자의 체계

오행(五行)	오계(五季)	오방(五方)	오음(五音)	오음(五音)	기본자	가획자	이체자
木	春	東	角	아음(牙音) 어금니소리	ㄱ	ㅋ	ㅇ
火	夏	南	徵	설음(舌音) 혀소리	ㄴ	ㄷ ㄸ	(ㄹ)
土	季夏	中	宮	순음(脣音) 입시울소리	ㅁ	ㅂ ㅃ	
金	秋	西	商	치음(齒音) 니소리	ㅅ	ㅈ ㅉ	(△)
水	冬	北	羽	후음(喉音) 목소리	ㅇ	ㅎ	

- 각 초성자의 제자 원리¹⁾
 - 아음(牙音) : 혀뿌리(舌根)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.
 - 설음(舌音) : 혀 끝(舌端)이 윗니에 닿는 모양.
 - 순음(脣音) :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닿는 모양(한자의 ㅁ)
 - 치음(齒音) : 아랫니의 모양
 - 후음(喉音) : 목구멍의 둥근 모양
- 전탁자(全濁字) : ㄲ, ㄸ, ㅃ, ㅆ, ㅆ, ㅈ - 기본자를 반복해서 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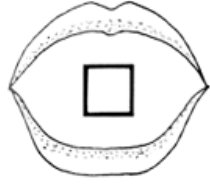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아음의 발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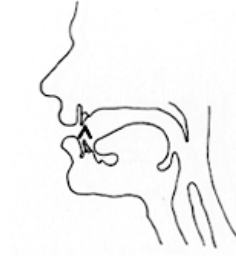


<그림 4> 설음의 발음

1) <그림 3>~<그림 6>은 김정수(1990/1997), 한글의 역사와 미래, 열화당, pp.22~24에서 가져옴.



<그림 5> 순음의 발음



<그림 6> 치음의 발음

4. 중성의 제자 원리

- 원리 : 천(天)·지(地)·인(人) [삼재(三才)]의 상형, 초출(初出)과 재출(再出)
- 방법 : 기본자를 만들고, 이들을 어울리게 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듦.

구분	기본자	초출자	재출자
양성 모음	·	ㄱ ㆁ	ㄲ ㆏
음성 모음	—	ㄷ ㄴ	ㄸ ㄹ
중성 모음	ㅣ		

- 기본자 : 상형(象形)
 - : 하늘이 둥근 모양(天圓)
 - : 땅이 평평한 모양(地平)
 - ㅣ : 사람이 서 있는 모양(人立)
- 초출자(初出字) : 하늘과 땅(ㄱ, ㄷ), 하늘과 사람(ㆁ, ㄴ)을 각각 한 번씩 결합.
- 재출자(再出字) : 초출자에 다시 ‘·’를 결합하여 글자를 만듦.

Ⅲ.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

1. 한국어의 음운과 발음 교육

- 조음음성학적 지식을 활용한 발음 교육은 시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임.
- 바로 이 점에서 한국어는 다른 언어 학습과는 달리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.
 - ☞ 훈민정음(한글)이 바로 그것.
-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이용하면 자모(字母) 교육은 물론 발음 교육까지도 병행할 수 있음.
 - ← 훈민정음은 매우 정밀한 조음음성학적 관찰을 통해 문자가 발음을 표상하도록 제자(制字)되었기 때문에 자모 교육과 함께 발음 교육이 가능함.
- ☞ 훈민정음의 문자로서의 우수성을 활용한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.

-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표상한 것이기는 하나, 한국어의 자모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
- 알파벳이 하나의 상징 기호에 불과하지만, 한글은 상징 기호인 동시에 발음의 특성까지도 보여주는 점이 특이함.

2. 훈민정음의 발음 교육 활용 가능성

- 한국어 교육의 시작은 자모(字母) 교육부터 이루어짐.
 - 그 순서는 사전의 배열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.
 - 자음은 ‘ㄱ’부터 ‘ㅎ’까지 자모를 익히고, 겹자음을 익힘.
 - 모음은 ‘ㅏ, 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, ㅣ’의 순서를 따름.
- ↔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 암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.

김지형(2007)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따라 한국어의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. 그것을 아래에 간략화하여 제시한다.

△ 자음자와 자음의 발음 교육

가. 순서

- ① 순음-설음-치음-아음-후음
 - 발음이 되는 조음 기관을 그 배치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억에 편리함.
 - 인간이 가장 먼저, 그리고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음은 순음(脣音)임.
- ② 기본자-가획자-병서자-이체자
 - 글자의 형태와 함께 발음 교육 병행.
 - 글자 형태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부각하여 교육.
 - ← 이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상의 차이로 음가가 구별됨.
- ③ 받침 : 7종성

나. 구체적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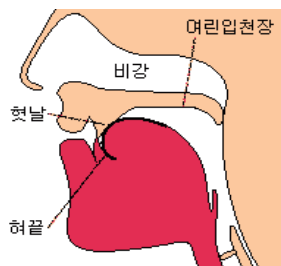
- ① 조음 위치 설명하기 : 발음 기관의 해부도 이용
- ② 기본자 설명하기 : 조음 위치에 따라 상형의 원리에 의해 제자된 기본자 설명.
- ③ 파생 글자 설명하기 : 기본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조음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음가 구별.

- 휴지(休紙) 활용 연습 : 발음의 차이는 곧 기식성의 유무, 긴장성의 유무에 따라 나타남.
 - ㄱ : 가 - 휴지가 약간 흔들린다.
 - ㅋ : 카 - 휴지가 심하게 흔들린다.
 - ㆁ : 까 -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.
 - ㅇ : 응 -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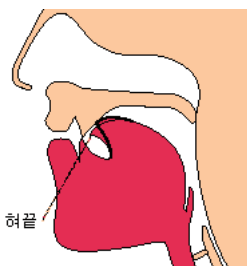
- 유기음 : 기식성이 있어 성문 아래에서 응축된 날숨이 일시에 터지면서 에너지[氣]가 발생 ⇨ 휴지가 세차게 흔들림.
- 긴장음 : 성문 아래에서 응축된 날숨이 후두 근육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약간 열리면서 빠져 나옴 ⇨ 날숨이 전체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음.
- 비 음 : 연구개가 내려와 있어 날숨이 비강으로 빠져 나가며 매우 약화됨.
⇨ 휴지가 흔들리지 않음.

다. 예시 : 설음(舌音; 치조음, 설단음)

- ① 발음 특성 : 설단이 치조를 막았다가 파열되거나 날숨이 비강으로 나오면서 나는 소리.



<그림 5> 치조음 ‘ㄷ, ㅌ, ㄸ’



<그림 6> 치조음 ‘ㄹ’



<그림 7>舌音

② 제자 원리

- 설단이 치조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여 ‘ㄴ’을 만듦.
- 같은 위치에서 소리의 강도를 달리하여 나는 발음은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듦.
→ ‘ㄷ’, ‘ㅌ’
- 긴장음은 접촉 단면적에 따라 ‘ㄷ’을 竝書하여 ‘ㄸ’으로 만듦.

<자음 교육>

- 자음자는 단지 기본자에 단지 획을 더하고, 기본자를 나란히 쓴 차이만 있으므로 기억에 편리함.
- 기본자만 알면 나머지는 같은 위치에서 조음되므로 그 방식만 확인시키면 아주 쉽게 발음 산출 가능.

△ 모음자와 모음의 발음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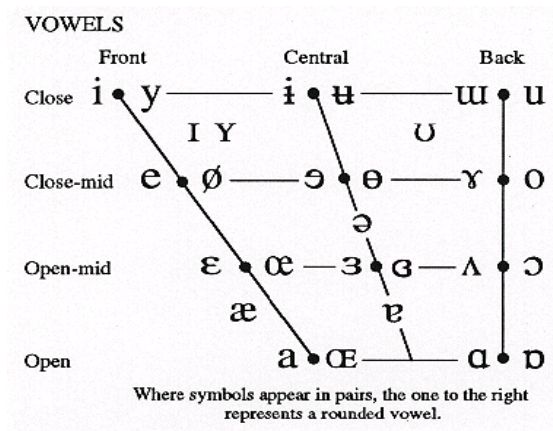
-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요소
 - 입의 모양 : 원순과 평순의 구별
 - 혀의 전후 위치 : 전설모음과 중설, 후설모음의 구별
 - 개구도(開口度) : 고모음과 중모음, 저모음의 구별 등
- 모음 교육의 주안점
 - 정확한 입 모양 만들기
 -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혀를 작동하기
 - 각 모음에 맞는 개구도 확보하기

가. 순서와 방법

- ① 기본자-초출자-재출자의 순서로 글자가 표상하는 음을 인식시킨다.(제자 원리 설명)
- ② 초출자 : 기본자가 결합하여 4개의 초출자를 만듦.
 - 사람의 오른쪽에서 해가 떠서 사람의 왼쪽으로 해가 진다.(ㅏ와 ㅑ)
 -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르고, 땅 밑으로 해가 진다.(ㅓ와 ㅕ)
 - : 이를 통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구별을 이해하도록 한다.
- ③ 결합 모음자 : ‘ㅘ’와 ‘ㅙ’의 경우 - 모음도 활용
 - ㅘ : ㅏ와 ㅑ가 결합하여 모음도 상의 중간 지점에서 소리가 난다.
 - ㅙ : ㅓ와 ㅕ가 결합하여 모음도 상의 중간 지점에서 소리가 난다.
- ④ 재출자 : ㅣ가 선행하는 소리임을 인식시킨다.

나. 모음의 구별 요소

- ① 입 모양 :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구별
 - 발음 시에 입 모양은 원순모음, 평순모음을 구별하는 척도가 됨.
 - 특히,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, ‘ㅜ’와 ‘ㅡ’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음.
 - ← 일본어의 ‘ㅜ’가 상대적으로 원순성이 적기 때문. 이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.
 - 사진 자료 활용 / 수업 중 교사의 實演 및 연습 : 정확한 입 모양 확인
 - 거울 보고 연습하기
- ② 혀의 전후 위치 : 전설모음과 중설모음, 후설모음의 구별
 - 전설-중설-후설모음의 대립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.
 - 입의 벌어짐 정도와 혀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.
 - 조음 기관 해부도 활용 : 혀의 정확한 위치 확인.
 - 모음도 활용 : 해부도를 활용한 후, 이를 모음도 상에 구현, 각 모음의 음가 대립을 보여줌.
 - 연필 활용 :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을 하게 하여 연필과 혀의 접촉 정도를 실제로 느끼게 함.
- ③ 개구도 : 혀의 전후 위치상의 동일 위치에서의 고모음-중모음-저모음의 구별
 - ‘ㅏ’와 ‘ㅑ’, ‘ㅓ’와 ‘ㅕ’, ‘ㅡ’와 ‘ㅣ’의 구별.
 - 계열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것도 고려.



<그림 8> 국제 음성 부호(IPA)의 기본 모음

3) 글자 이름 학습의 필요성

- ‘기역~히읇’까지의 자모 명칭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.
 - 자모 명칭의 유래 : 최세진의 『훈몽자회(訓蒙字會)』에서 처음 보임.
 - 이는 자모의 음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.
- 음절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명칭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.
- 초성의 발음과 종성의 발음을 교육할 때 활용이 가능함.

가. 자음 명칭의 구성

- ① 모두 2음절로 구성.
- ② 각 음절은 그 위치에서 해당 자음의 음가를 예시한 것임.
- ③ 제1음절은 자음과 ‘ㅣ’가 결합한 것.
- ④ 제2음절은 모음 ‘ㅡ’ 아래에 자음을 배열한 것. (ㄱ, ㄷ, ㅅ 제외)

나. 모음의 명칭

- 그 자체가 바로 발음임.
- 모음부터 가르쳐야 발음 교육을 할 수 있음.
 - ← 음절 단위의 구체적 음성으로 실현되기 때문.

IV. 훈민정음의 우수성

1. 소리와 문자에 관한 연구의 결정체

- 몽골어, 여진어, 거란어, 왜어, 중국어 등 주변 언어의 소리와 문자에 대한 연구.
 - 산스크리트어, 티베트어 등 전래의 언어에 대한 연구
 - 당시까지의 모든 문자 이론과, 통용되던 문자들의 장단점을 모두 수렴.
 - 새로운 독창적 착상을 덧붙임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문자 창제 가능.
- ⇒ 인간의 말소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가장 알맞은 문자 창제.

2. 언어학과 철학의 절묘한 만남

- 음운학 이론과 동양 철학의 우주관을 반영한 음양오행의 이론을 절묘하게 결합.
- 언어학과 철학을 결합한 문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음.

3. 음소 문자

- 알아야 하는 기호의 수가 적다.
-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.
- 발음 기관을 상형한 세계 유일의 문자.

4. 소리와 문자가 거의 일대일의 대응을 이룬다.

- 영어 : [k] - 'k', 'c'
 - 한국어의 음소와 한글은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함.
- ⇒ 발음 기호 없이도 읽을 수 있음.
- ⇒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만 알면 쉽게 적을 수 있음.

5. 자질 문자의 성격을 갖는다.

- 글자를 보고 소리를 짐작할 수 있다.
- 자획이 단순하다. (직선과 원)
- 문자 사이에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. (예사소리-된소리-거센소리)
- 초성·중성을 구분하여 만들 ⇒ 모음과 자음이 체계적으로 다른 글자꼴을 갖게 됨(한글의 특징)

6. 음절 단위로 모아 썼다.

- 음소 문자이면서도 표의 문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.
-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모두 할 수 있다.

7. 민본주의의 산물이다.

: 전제 군주가 국민을 위해 글자를 창제함. 문자사상 독특한 자리 차지.

8. 국제 한글 음성 기호의 개발 가능

- 무문자 언어를 가진 종족에게 한글 문자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반증(이현복, 전광진 교수 등)
-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찌아찌아어의 공식 문자로 채택

한글은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꼴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표기 체계이다.